



헤이쵸궁

朱雀門

나라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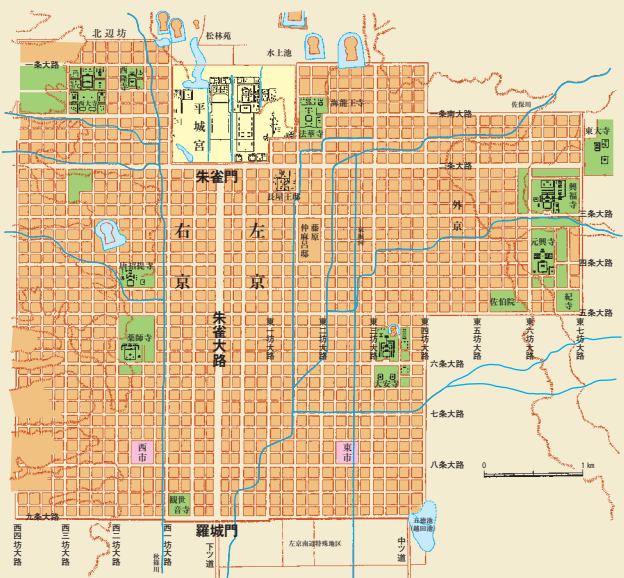
朱雀門과 平城京의 朱雀大路

7세기에 완성된 고대 도로인 「시모즈미치 (下ツ道)」는 후지와라 경 (藤原京) 에서 북쪽으로 곧게 뻗어 헤이쥬 경 (平城京) 의 정문인 라쥬문 (羅城門) 까지 이릅니다. 羅城門을 나가면 폭이 75m인 주작대로가 북쪽으로 곧게 뻗어있습니다. 가로수에는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羅城門에서 4km 떨어진 곳에 헤이쥬 궁의 정문인 주작문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주작문의 좌우에는 높이 6m의 築地堀 (흙을 다져 만든 담) 이 넓이가 사방 1km인 헤이쥬 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작문의 앞에서는 신라, 당의 외교사절을 맞이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여 우타가키 (歌垣) 등의 행사를 치뤘습니다. 정월에는 천황이 주작문까지 나와 신년을 축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작문은 위사 (衛士) 가 지키고 있었는데, 항상 열려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궁의 정문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平城京 내 주작문의 위치



주작문 앞에서의 우타가키 (歌垣) 모습 (早川和子 그림)

주작문 발굴조사

주작문의 위치와 규모는 1964년의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조사를 거쳐 1989년에는 복원 정비를 앞두고 전면 재발굴이 실시되었습니다.

주작문은 기둥 중심간 거리가 모두 17척 (약 5m) 으로 정면 5칸 (약 25m), 측면 2칸 (약 10m) 의 규모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이 세워진 기초 (기단) 는 掘込地業라는 기법으로 견고하게 다졌고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출토된 지붕 기와를 통해 후지와라 궁 (藤原宮) 에 올려진 기와가 재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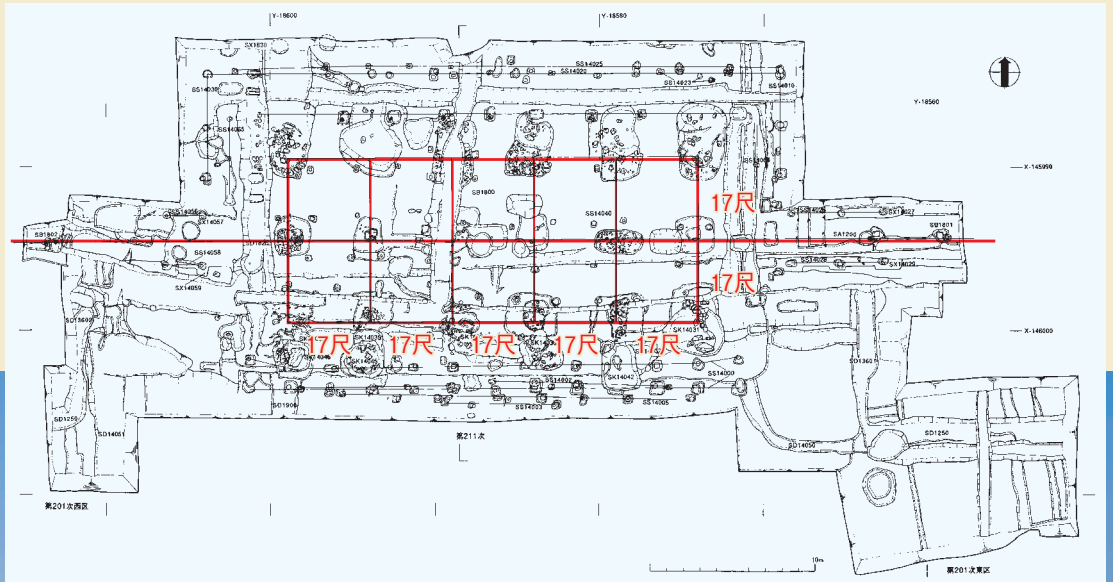
1990년도 발굴조사 (동쪽)



출토된 초석 일부
(약 2m×1.3m×0.6m)



출토된 막새
(후지와라 궁의 기와가 재사용됨)



발굴조사 유구도
(발굴조사로 알게 된 사실을 도면에 기록)



1990년도 발굴조사 (남쪽.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기둥 자리)



「伴大納言絵詞」에 그려진 平安宮 (헤이안 궁) 의 주작문
(이를 근거로 헤이쥬 궁의 주작문도 이중문이었다고 상정됨)



法隆寺 中門 (7세기 말 건립)



藥師寺 東塔 (730년 건립)
(기법·의장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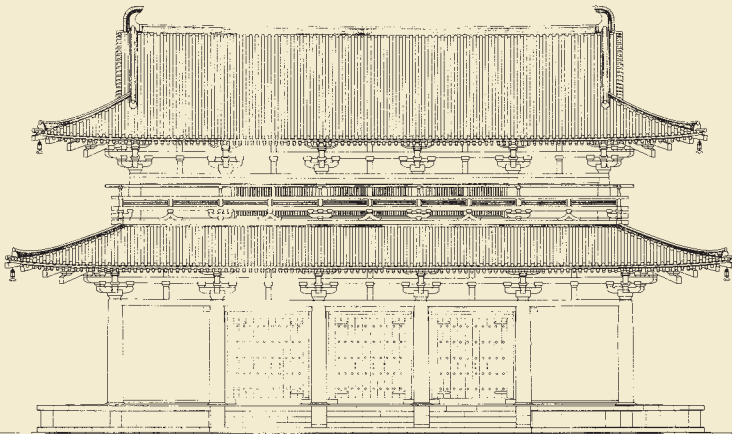


東大寺 轉害門 (8세기 중엽 건립)
(나라시대 대규모 건축의 실례로서, 부재의 크기 및 비례관계 등을 참고)

주작문의 복원연구

헤이쥬 궁 주작문의 구조에 관련한 직접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이번 복원에서는 헤이안 궁의 주작문이 이중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헤이쥬 궁의 주작문도 이중문이라고 상정하고, 기본 구조는 고대의 유일한 유구인 호류지 중문 (法隆寺 中門) 을 모방하였습니다. 주작문은 나라시대 전기의 건축물이므로 양식은 같은 연대인 야쿠시지 동탑 (藥師寺 東塔) 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작문의 규모가 큰 관계로 부재의 크기 및 비례관계 등은 비슷한 조건을 갖춘 도다이지 데가이몬 (東大寺 轉害門) 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복원도를 그리고 이를 기초로 모형을 제작하여 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렇게 차츰 실물크기로 복원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복원입면체
(발굴조사와 현존하는 건축물을 토대로 추측)



1965년에 제작한 1/10 모형
(모형 제작을 통해 제차 검토를 거듭함)

세부 의장의 복원

구조와 병행하여 세부 의장도 검토를 더하였습니다. 막새의 디자인 등은 출토품을 본뵈거나 상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유적의 출토품을 참고로 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의 세부는 海竜王寺 五重小塔, 풍탁은 四天王寺 講堂 출토품, 하양의 마구리 철물은 藥師寺 출토품, 치미는 唐招提寺 金堂, 柏原市 太平寺 출토품, 難波宮 출토품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복원한 주작문의 풍탁



▲四天王寺 講堂 출토품



▶원형제작 ▲검토



◀완성

치미의 복원
(唐招提寺 金堂 등을 참고)

주작문 복원공사

주작문 복원은 1989년에 기단복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에 기단이 완성되었고 주작문 본체는 1993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복원한 주작문은 18개의 기둥 (직경 70cm, 길이 5.3m) 등에 奈良県 吉野産 (나라현 요시노산) 등 총 약 1,000㎡의 국산 노송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지붕에는 약 4만 2000매의 기와를 얹었습니다.



기단 복원



건설용 보호각 (임시지붕) 의 조립
(건설시 발판이 되는 동시에 비·바람을 막아줌)



목재 가공장
(사용한 목재는 奈良県 桜井市에서 가공)



목예식
(건설 전의 건축 의례)



기둥을 세우고 창방을 연결



공포를 짬
(기둥 위에 부재를 짜 올림)



1층을 짜 올림



2층 짜기



준공식전 (竣工式典)



기와 얹기



붉게 칠하기
(3번 덧칠)



서까래를 올려 지붕을 만듦



상량식

복원 설계와 구조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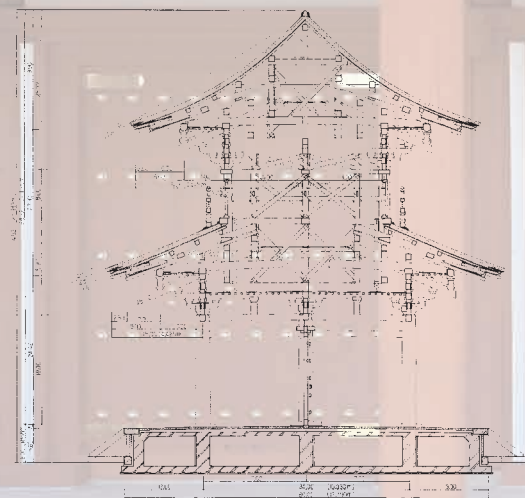
나라시대의 건물은 그 시대 특유의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구조상의 안전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원한 주작문에 관해서는 현대의 건축기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나라시대 건축물의 뼈대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보강 대책을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강은 나라시대의 주작문이 오늘날까지 존속되었다는 가정 하에, 중세 및 근세에 개발된 공법을 가급적 보이지 않는 곳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목구조를 유지하도록 고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붕 안쪽에 X형의 보강제 (가새) 를 넣고, 1층의 벽면에는 내부에 나무틀을 짰 뒤, 그 안에 금속판을 끼워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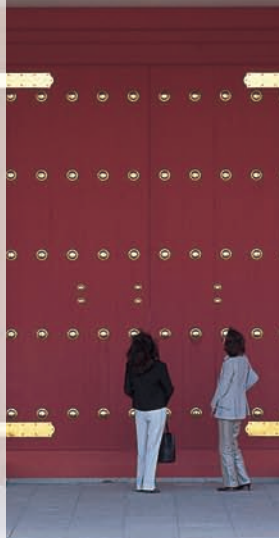


보강제를 넣은 2층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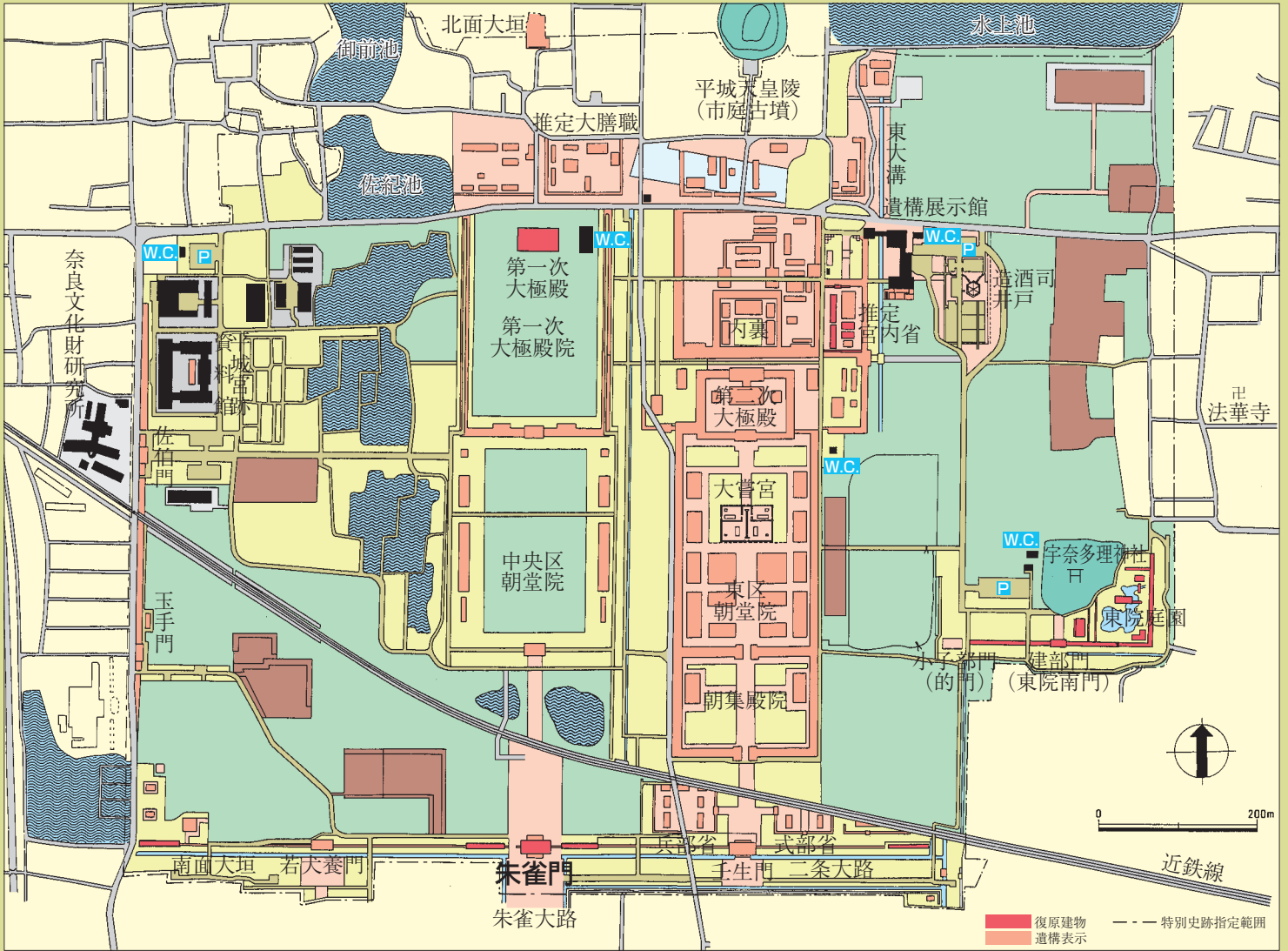
복원 실시 단면도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층의 벽면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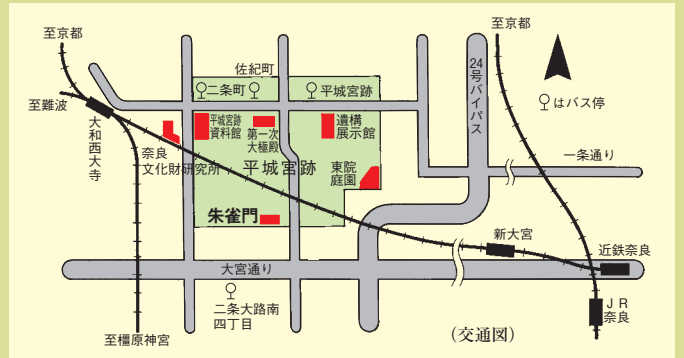
(내부에 나무틀을 짜고 금속판을 끼워 넣음)



세계문화유산 특별사적 헤이조 궁터

헤이조 궁 주작문 조사·복원 정비 약연표

연도	내용
1964 昭和39	북쪽 절반 발굴조사로 주작문의 위치 및 규모 확인 (平城제16·17차 조사)
1965 昭和40	1/10 모형 제작
1979 昭和54	남쪽 부근 발굴조사 (平城 제112-11차 조사)
1980 昭和55	공포를 원래 크기대로 모형 제작
1981 昭和56	문의 서쪽 담장 발굴조사 (平城 제130차 조사) 문의 서쪽 담장 복원
1982 昭和57	문의 동쪽 담장 발굴조사 (平城 제143차 조사) 문의 동쪽 담장 복원
1986 昭和61	「헤이조 궁 주작문의 의장 및 구조에 관한 연구」 개시
1989 平成元	주작문의 기단 복원 결정. 재발굴·기반 정비 개시 문 앞면 동서 구석 부분 발굴조사 (平城 제201차 조사)
1990 平成 2	주작문 전면 재발굴 (平城 제211차 조사)
1992 平成 4	내진벽 실물크기로 실험 실시 주작문 기단 복원 완료
1993 平成 5	주작문 본체 복원공사 개시
1994 平成 6	기둥 세움
1997 平成 9	상량
1998 平成10	준공
2000 平成12	주작문에 연결된 남쪽 담장 복원



- ◎近鉄「大和西大寺駅」북쪽 출구에서 도보 30분
- ◎JR奈良역, 近鉄奈良역에서 西大寺역행, 또는 近鉄大和西大寺역에서 JR奈良역 방면 버스 승차 후 「平城宮跡」 하차, 도보 20분
- ◎JR奈良역, 近鉄奈良역 방면 버스 승차 후 「二条大路南四丁目」 하차, 도보 3분
- ◎무료입장
- ◎개관시간 9:00~16:30
- ◎폐관일 월요일(월요일이 축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연말연시, 그 외 특별한 경우

헤이조 궁 주작문

발행:2012년 2월

〒630-8577 〒630-8577 奈良市二条町 2-9-1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TEL 0742-30-6753 FAX 0742-30-675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bunken.jp